

가을과 음악과 불심 '하모니'

- 9일 남양주 백천사 '산사음악회'
- 13일 부산KBS홀 '자비실천 음악회'
- 15일 경주서 동국대 국악과 정기연주회
- 10월2일 신홍사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
- 10월19일 불교음악학 '운문스님 기념음악회'



◇올 가을 전국에서 불교 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중앙국악관현악단과 불교연합합창단의 연주로 2월 27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된 국악교향곡 '혜초'의 장면.

절망 하나 짙어 지고 어디론가 더나고 싶은 계절.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을 덮고 가을이 시나브로 다가오고 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사를 잠시 접어두고 아름다운 선율에 의지해 달콤한 휴식을 취하기 좋은 때다.

마침 백천사 산사 음악회 '운문스님 기념 음악회' 민족화합자비 실천 음악회 '동국대 국악과 정기 연주회' '김영동의 산사 음악회' 등 대형 무대들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9일 백천사 앞 마당에서 저녁7시

'제2회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례 및 시민을 위한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진스님이 '무상초' '우리 가는 길' '어머니' '산사' '사모곡' 등을 불자 가수 머루와 다래가 출연해 찬불가으로 음성공양하며 가수 송창식도 나온다. 이외에도 티벳스님들이 사후에 축생으로 태어나지 말도록 기원하는 고유의 티벳춤인 사자춤과 사슴춤을 선사한다. (0346)577-6433

13일 오후1시 부산KBS홀에서 열리는 '민족화합 자비실천 음악회' 역시 대구불교방송 예술단의 관현악과 합창이 펼쳐진다. 분단

의 아픔과 지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찬불가와 국악, 가요 등이 마련된다. (051)867-1515

15일 저녁7시30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동국대 국악과 정기 연주회'도 빼놓을 수 없다. 1부에서는 시나위 합주, 법패 등 불교 음악의 정수가 연주되며 바라마루와 나비무, 승무

등도 곁들여 진다. 2부에서는 창부타령과 아리랑 등 전통 민요들이 국악관현악의 반주에 맞춰 연주돼 관객들의 흥을 돋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0561)77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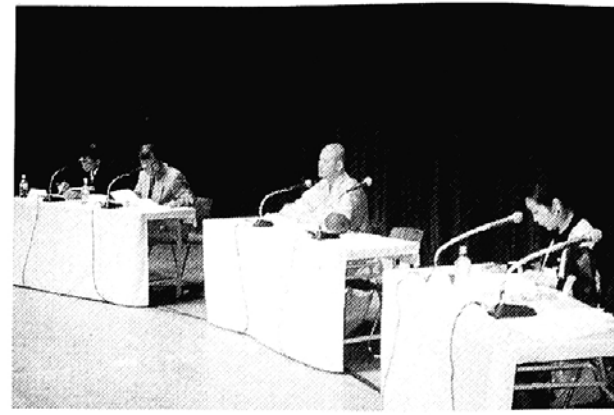
속초 신홍사(주지 도후)는 10월2일 '99 관광엑스포'의 일환으로 '김영동의 바람의 소리'를 공연한다. '초원' '산행' 등 기존곡과 6월에 발표한 신곡 '메이리'

'노을' 등 20여곡이 연주될 신홍사 음악회에는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 또 중간에 삽입되는 코러스는 보컬그룹이 연주를 맡는다. (0392)636-7393

10월19일 한국불교음악협회(가칭)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합창'을 주제로 한 '운문스님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수많은 찬불가를 만들어 불교음악에 큰 공헌을 한 운문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스님이 작사한 '예불가' '산회가' '보현행원' 등을 시립국악교향악단의 반주에 맞춰 사할 연합합창단 8백여명이 연주한다. 또 정부기교수(중앙대 한국음악과)가 불교를 소재로 창작한 오페레타 '아미타불'도 공연될 예정이다.

가을을 맞이해 개최되는 다양하고 풍성한 음악회는 불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 주최로 1·2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4회 동양 음악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 법패의 유형과 기장'을 주제로 법현스님(동국대교수)이 발표하고 있다.

동양 불교성악 총체적 조명

서울서 열린 '동양 음악학 국제학술회의'

6개국 불교음악학자 7명 각국 전통불교음악 소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불교 성악을 동양 불교 음악과의 비교를 통해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국제 음악 학술대회가 열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원은 1·2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4회 동양 음악학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양 불교권 각 나라의 전통 불교 성악의 역사와 특징을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티벳, 중국 등 6개국 불교 음악학자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한다.

음악인 '차르야'는 13세기 후 인도에서 불교가 붕괴 됐을 때 카루만드 계곡에 남은 불교유파들이 의식과 명상에 이용되면서 보존됐다.

■일본 불교 성가 '쇼묘' -이리 이고준(일본 우에노학원 음악 연구원)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 성가를 '쇼묘'라 하는데 이것은 1960년 이래 일본 음악의 원류로서 재발견되어지고 있다. '쇼묘'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것은 752년 동대사대불(東大寺大佛) 개안공양(開眼供養)에서 4곡이 불려지면서 부터다. 1472년 발간된 '성명집(聲明集)'은 현존 세계최고의 악보집이다.

■북경의 불교음악-티에칭(중국 음악 연구소 연구원):북경에는 지화사(智化寺)로 대표되는 도시의 음악인 경음악과 시골 음악인 '겍음악'이 있었다. 두 유파는 악대편제가 같으며 모두 관악기와 타악기를 사용했지만 타악기를 더 중시했다. 1953년까지 지화사에는 예승(藝僧)이 19명 남아 있었고 절에 들어가 7년 동안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

■티벳 불교성가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 -엘리사베트(라디오 프리 아시아 음악감독):티벳의 불교음악인 '드비양(dbyangs)'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 티벳의 종교 지도자인 판디타(1183~1251)의 음악 논문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티벳어와 산스크리트어의 언어적 음악의 차이 때문에 인도의 음계는 티벳의 성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몽고의 불교 가곡' -자무스(중국중앙민족대학 연구원):몽고의 불교 가곡은 불교의 탄생이야기와 고승들의 역사 이야기 등 서사가곡이 대부분이다. 원나라 멸망후 13세기 중엽에 티벳에서 전해진 몽고 불교 성악은 몽고 라마승이 아철지녀(阿訇)로 과독(譯讀)하거나 법회 송창할 때 사용하는 '승경조'와 의식가곡 및 서사가곡 등을 포함하는 '불교가곡' 등으로 나뉜다. 김주일 기자

사색의 자취 그림과 글로

원성스님 첫수필집 '풍경' 펴내

천진무구한 동지들의 동글동글한 얼굴을 일러스트처럼 곱게 그려온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이 생활과 사색의 자취를 그림과 글로 풀어낸 첫 수필집 '풍경'(이레)을 엮어냈다.

고교 2학년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출가해 겪은 눈물겨운 삭발과정, 어머니를 못잊어 눈물짓던 하루하루, 예불, 공양 등 산사의 일상을 담은 글과 솔바람, 첫눈 등 자연에 대한 감성을 담은 글 등 80여수의 시와 각 시마다 그림이 수록됐다.

그림과 시가 하나로 어우러진 각 장은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돌이켜보게 하는 묘한 여운

을 남긴다. 또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젊은 수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구도나 심오한 선의 세계가 아닌 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스님의 그림은 여백을 살린 다양하고 독창적인 묘사와 기법의 구현으로 보는 이들에게 가슴이 저릴 정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장난기 어리고, 싱어싱어, 폴라폴라 투의 때쓰는 듯한 스님의 글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원성스님의 '첫식별'.

日소장 백제문화재 '첫 고국나들이' 미륵보살반가상 '불 기회'

미륵보살반가상, 일광삼존상(一光三尊像)등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급 백제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9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금동제 미륵보살반가상(사진)은 7세기에 제작됐으며, 충남 공주시 절터 석탑 안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광삼존상 역시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금제수식, 금동제 수면대금구 등 47점이 선 보인다.

오종욱 기자



간다라 미술대전' 서울 관람 7만명 10일부터 부산에서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열렸던 '간다라미술대전'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의 전시를 마치고, 10일부터 11월10일까지 부산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파키스탄의 국보급 간다라 미술품들이 유례없이 한 자리에 모인 세계적 수준의 전시였던 '간다라미술대전' 서울 전시(6월30일~8월29일)에서는 7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에서 열리는 '간다라미술대전'은 부산불교연합회 등이 후원하며, 10일 오후 3시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부처님 고행상' '불입상' '불두' 등 120여점이 선 보인다. (051)637-6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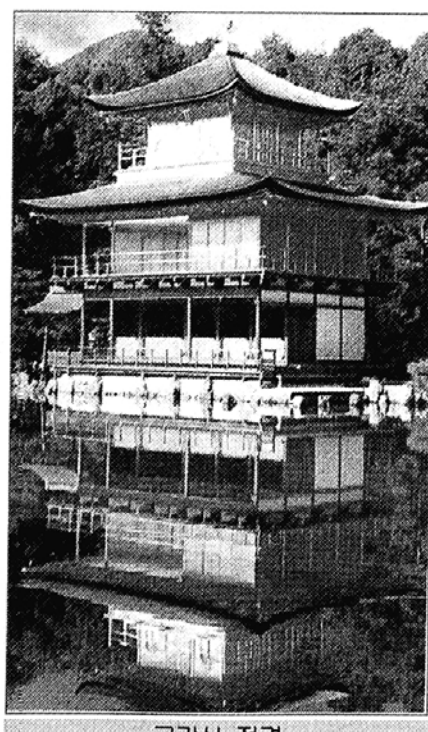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문화재보수사업의 수리내용을 수록한 <97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97년에 완료된 문화재보수사업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수리(국보 6건, 보물 57건, 사적 62건, 중요민속자료 24건) 159건을 수록, 문화재 연혁·주변환경·수리내용·수리전·후 사진·시공요령 등을 기록했다.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 석곽, 석탑, 고분등 문화재 수리에 대한 정보를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함으로써, 기록보존뿐 아니라 학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음사 낙성법회 및 일본불교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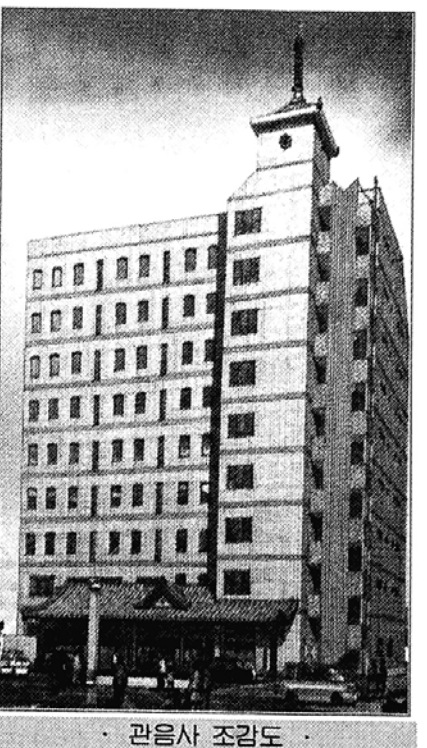
21세기를 맞는 한일 불교 친선의 상징 법회와 관서지방의 일본불교 핵심사찰을 참배하는 행사를 안내합니다.



금각사 전경

일 려			
日字	地域	時間	日程
12월03일 (금)	오사카 교토	11:55 18:00	오사카 도착후 교토 이동 삼십삼간당 참배후 석식 및 호텔 투숙
12월04일 (토)	오사카	09:00	조식 후 호텔 출발 금각사, 광봉사, 동본원사 참배후 나라동대사대불, 법봉사, 약사사, 비조사 참배 석식 및 호텔 투숙
		18:00	
12월05일 (일)	오사카	09:00	조식후 호텔 출발 ※관음사 행사 참석 오사카성,신사이바시, 도봉보리 관광 석식 및 호텔 투숙
		18:00	
12월06일 (월)	오사카	09:00 15:10	조식후 숙소 출발 사천왕사 참배후 공항 이동 오사카 출발

- ◆ 가는 때: 1999. 12. 3 - 12. 6 (3박4일)
- ◆ 가는 곳: 오사카, 교토, 나라
- ◆ 동참비: 1인당 89만원정 (신청금 20만원 포함)
- ◆ 접수마감: 1999. 10. 31 까지
- ◆ 문의 및 접수처:
 - 임조선사 (0344)903-9121 임조스님
 - 원주불교회관 (0371)764-9888 이선행법사
 - 광주연합회 (062) 226-4729 이장국거사
 - 부산반야포교원 (051)761-1908 김중호 법사
 - 제주 (064)757-1622 김매강 보살
 - 제주한라불교 (064)755-2203 조인석국장
 - 서울 평불협 (02)735-5558 이지범국장
- ◆ 수속대행: 두성관광 (02-730-6100)
- ◆ 후 원: 현대불교신문사



관음사 조감도